

우리마을 사람들 맞나?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수도권 변두리 시골마을에서 정치를 새롭게 배워간다. 그저 낯날이 정치가 일상이고 일상이 정치란 걸, 이곳 지극에서야 더욱 실감한다. 총선거를 열흘 가량 앞둔 지난 일요일 마을 대청소가 이뤄졌다. 지난 척사대회 이후 한달여 만이다. 마을사람 몇몇은 개울가나 논두렁 언저리에 걸쳐 있는 비닐, 패트병 등을 주웠다. 또 밧은 화관앞 대형 화분에 흙을 갈아주고 퇴비와 비료를 넣어 덧거름작업을 펼쳤다.

그리고 임시총회도 열렸다. 안건은 마을재정, 한전지원금, 물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그다지 긴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청소를 겪며 모여보자는 생각이었던 듯, 이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싶어했다. 한전 지원금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것이고 물보조금은 상수원보호권역에 주는 비용이다. 결론은 지원금으로 유희농지에 환급작물을 심어 수익을 더 올려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마을 재정 건은 어떤 이가 급전이 필요해 대출 담보로 잡혀던 걸 해소했

다는 내용이였다. 의례적인 화합이 이뤄지고 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정치얘기가 이뤄졌다. 삼삼오오 잡담과 여유가 펼쳐졌을 때다. 단연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 젊은 층은 대체로 여당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노년층은 국정 안정을 선택하겠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예전의 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것만해도 여기서는 세상이 달라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부는 화를 내며 언쟁하듯 성토하고 싸워서 무엇하냐며 중재하는 이도 있었다.

그중에서 90대 한 노인은 아주 예전에 있었던 한강백사장 유세 등의 기억들을 소환하며 전설같은 얘기를 펼쳐놓기도 했다. 그리고는 요즘 그때 가슴 뛰던 연설을 다시 보게 된다고 회상했다. 아마도 신생 정당에 대한 말인 듯 싶다. 여지껏 그의 정치색을 알 지는 못했다. 한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 조금은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살아서 마지막 투표가 될 거라는 말에는 모든 이들이 놀라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 화장장 설치에 대한 건은 결론이 유보됐다. 최근 어떤 사회단체에서 선가 우리 마을 뒷산에 화장장을 건립한다는 의견서를 시청에 접수, 마을에 의견을 물어왔다. 어떤 이는 오늘날 화장장의

모습을 설명하며 그다지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무작정 반대할 것만도 아니라고 말했다. 젊은 이장은 마을 노인들 앞에서 화장장 얘기를 기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도 어느 노인도 대화를 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들 적당히 언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 주장을 펼쳤다.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 맞나' 싶었다. 그래서 이날 풍경을 '적당히'라고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 결국 화장장 설치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다시 논의하자고 유보하는 결로 얘기를 마치는 걸 보며, 그 자연스런 분위기가 좋았다. 한전지원금 등 마을 안전부터 선거, 화장장 등의 문제를 이처럼 실감나게 대화하면서도 주민들이 갑자기 정치 수준이 몇단계는 높아진 것 같았다. 도대체 이게 예전의 이웃들이 맞나.

마을사람들의 정치력이랄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그래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순을 피워내는 세상 이치가 새삼스럽다고 할까.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서 SNS에서 세상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그저 모든 정치를 새로 배우고 느낀 하루, 달라질 세상이 기대된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결혼할 때 3억을 쥐야하는 부모들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지난해 결혼 또는 출산시 1억원의 증여 재산 추가 공제를 실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됐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혼인할 때, 1억5000만원을 줄 수 있는 부모와 그럴 수 없는 부모가 갈릴 것이라고 말이다. 또 다른 형태의 채무 부채가 생겼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혼인증여공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소수이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5~35%에 불과하다고 짚기도 했다. 결국 해당 제도는 상위계층을 위한 일명 '갈라치기 세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되는 의문은 근거가 부족한 '부자 감세'는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기업의 안정·영속성과 관련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온 상속세 저감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될 시점에 시장은 상속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장의 다양한 기대감을 빗나간 세부안만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높은 상속세로 꼽기도 한다. 주요 7개국(G7) 등 다수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상속세율을 낮추고

있다. 반면,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인상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할증 과세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기도 해 세계 1위 수준으로 치솟는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의 성장과 부의 국내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개한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2.4%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총선은 게임이 아닐 뿐더러, 선거가 끝난다고 '대한민국 게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소수의 어떤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나라 경제를 위한 세법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재고되길 바란다.

/goche@

오늘의 운세 4월 3일 (음 2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먹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48년생 돌이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 60년생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72년생 기대가 크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84년생 투자의 디지털화에도 수백 가지가 넘으니 공부해야.
- 소** 37년생 세월만은 변함이 없다. 49년생 선행은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61년생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둬라. 73년생 바쁜 날이지만 내일을 위한 성찰은 있어야 할 것. 85년생 차 구매는 다음에.
- 호랑이** 38년생 겨울이 지나가니 봄이 멀지 않다. 50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 62년생 새로운 계약이 오후에 있으니 의지로 성사. 74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86년생 생활의 편리한 과원으로 기금 놀란다.
- 토끼** 39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하니 새롭게 집 안 청소 시작. 51년생 피곤한 날이니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63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오니 주의. 75년생 우물에서 승냥 찾지 말고 차분한 행동으로. 87년생 오후 7시부터 운전 주의.
- 양** 40년생 세상만사 새움지마이니 낙담하지 마라. 52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64년생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76년생 자연계에는 하루가 있고 춘하추동의 계절이 있다. 88년생 지갑에 소액현금이라도 지니고 다녀보라.
- 뱀** 41년생 오랜 친구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이랑을. 53년생 내일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65년생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하루. 77년생 앞으로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89년생 주책으로 이사를 할까 계획 중.
- 말** 42년생 모임에서 한번은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4년생 새색을 튀우기 위해서 풀잎들이 말라죽는다. 66년생 작은 먼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78년생 시험공부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필요. 90년생 보이지 않는 흐름을 타서 재물이 안정.
- 양** 43년생 재개발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5년생 사람은 각각 자기 운명을 만든다. 67년생 밖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선일. 79년생 기밀 수 있는 그들이 그러한 날임. 91년생 오전 일찍 신문용 통해 소식을 얻는다.
- 원숭이** 44년생 슬픈 지난일은 다 뒤로하고 새 출발. 56년생 어제 봤던 그 사람이 귀인인가 싶은 생각. 68년생 아는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80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북이 절로 울려 들어오는 날. 92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 닭** 45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겠다. 5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투자 욕심을 버려라. 69년생 조직에서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81년생 지혜가 향상되니 복이 온다. 93년생 취직이 되어 감사할 날.
- 개** 46년생 화목함에서 아름다운 미래가 앞에서 펼쳐진다. 58년생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 70년생 명예는 높이며 실리도 만족. 82년생 애써서 보살필 자신이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야 할 것. 94년생 부모님께 기쁜 일이 생기니 마음이 흡족.
- 돼지** 47년생 노후에 들어간 직장에서도 물갈이가 시작. 59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웃을 준비해야. 71년생 바람이 분다고 쓰러지는 것은 아니니. 83년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가기 손실이다. 95년생 분배를 잘해야 다툼이 일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미래 내다보기



김상회의四季
미래 내다보기

인심人心은 조석朝夕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은 아침에 한 결심決心이 저녁이 되면 바뀌게 되는데 환한 얼굴의 남자가 상담실로 들어섰다. 대기업 보험사 자금운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다. 그가 처음에 상담을 왔던 건 초년 시절 이직 고민 때문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증권사에 배치를 받았다. 종합상사에서 무역업무를 하고 싶었던 그는 일단 배치받은 증권사에서 근무했지만 회사를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당시 그의 사주에 이직 운이라고 할 만한 형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 움직이면 오히려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주에는 정재가 있었는데 이는 차분하고 꼼꼼한 성향을 보여준다. 성실한 스타일이면서 금전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신중함이 있다. 이직을 상담하는 그에게 회사를 옮기지 말라고 만류했다. 당시에는 경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다. 미래는 제조업보다 금융의 시대가 될 게 분명했다. 금융이 경제의 중심이 될 테니 떠날 이유가 없다고 설득했다.

돈을 투자하고 수익률 싸움을 벌이는 금융시장에서 성실성을 보여주고 반듯한 성품으로 고객을 대하면 기대 이상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예측했다. 그는 이직하지 않았고 필자 예상대로 이십여년이 지난 뒤 임원 자리에 올랐다. 금융 전문가 또는 자금운용 전문가로 업계에서 명성이 드높아졌다. 얼마 전에는 보험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최고 대우를 받으며 이직했다. 그가 처음 취직했을 때 원하는 곳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옮겼다면 지금 같은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그가 원했던 종합상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위상이 낮아졌다. 미래 운세 흐름이 사주와 종합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인 사례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늬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내 1부터 9의 숫자가 각각씩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그램을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405호 | |
| 일간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509호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